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론과 생명적 오브제론*

허 정**

1. 서론
2. 현대예술을 고찰하는 고현학
3. 모더니즘 시 연구
4. 주지적 시론
5. 생명적 오브제론
6.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론과 생명적 오브제론을 조명한 글이다.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 연구는 다다이즘·초현실주의, 신감각파, 이미지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초현실주의가 있다. 구연식은 전위예술 사조를 발생론적 맥락과 관련지어 연구하였고, 다다이즘을 중심으로 전위시가 식민지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삼사문학』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하였으며, 고전문학작품들을 데페이즈망의 관점에서 재독해하였다. 그는 모더니즘과 이미지의 종래를 독창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마저도 주지(主知)의 문학에 포함시켰다. 초현실주의 시에는 혼란을 질서화하는 지성이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혼란을 규제하는 통일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독특한 초현실주의 시작법

* 이 논문은 학술대회 <송랑 구연식 시인 재조명>(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및 한국어문학과 주최, 2022.11.1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heoj2000@hanmail.net)

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적 오브제’라는 독창적인 시론을 창안했다. 이것은 파편적이고 비생명적인 초현실주의의 이미지에 유기적인 생명성을 불어넣는 시론으로, 전위예술이 지닌 실험지상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모색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는 초현실주의 시를 쓴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 연구자로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구연식, 초현실주의, 모더니즘, 주지주의, 생명적 오브제

1. 서론

구연식은 일곱 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으로, 주로 초현실주의 시를 쓴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시론 분야(시 연구 및 시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다. 구연식은 첫 시집 『검은 산호의 도시』를 1962년 발간한 이후 두 번째 시집 『감각』을 1985년에 발간하는데, 그 사이 만 23년의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그가 주력한 것은 시 연구이다.

조향의 영향 아래 초현실주의 시를 쓰던 그는 초현실주의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과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였다. 하지만 60년대 군사쿠데타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고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게 되자 그는 좌절하게 된다. 군사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는 작품을 집필하였으나 발표하지 않았고, 군사정부와 거리를 둔 채 연구실에서 모더니즘 시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¹⁾ 초현실주의 이론이 새롭고 전위적이고 매력적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학을 강의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²⁾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나온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³⁾다. 그는 여기서 주로 입체파·미래파·다다이즘·초현실주의와 같은 전

1)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문학도시』, 1998년 가을호; 구연식, 「내가 말하는 나의 시세계」, 『부산시인』 75, 1999; 구충서 편, 『영원을 넘어—송랑 구연식 시전집』, 물망초, 2022, 704~705·714쪽. 이하 『영원을 넘어—송랑 구연식 시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함.

2) 『전집』, 692~693·700·735쪽.

3) 구연식,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 시문학사, 1979. 이하 이 저서는 ‘『고현학』’으로 표기

위예술사조 연구에 주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위예술이 한국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핀다. 그의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신감각파와 이미지즘 시 연구로 이어진다.⁴⁾

이를 통해 그는 이른바 유럽의 아방가르드 경향에 더하여 일본의 신감각파 경향과 영미의 이미지즘 경향 연구를 병행하면서 모더니즘 사조 전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하고, 이를 한국문학사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 연구들에는 되새겨봐야 할 요소들이 많다. 하지만 구연식의 시가 꾸준히 조명 받아온 반면,⁵⁾ 시론에 대한 조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우선, 이상 소개한 구연식의 시론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에 있다. 이 연구들의 논지를 정리해가면서, 모더니즘 시에 대한 그의 관점, 시론의 특징, 연구의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초현실주의가 그의 모더니즘 논의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모더니즘론이 주지적인 특성이 있음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는 초현실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토착화를 고민하였고,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그것을 쇄신시키고자 하였다. 그 쇄신의 노력은 이른바 초현실주의의 이미지에 생명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감각』에 소개된 ‘생명적 오브제론’은 그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생명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구연식이 어떤 측면에서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찾았으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다.

이렇게 이 글은 구연식의 시론을 대상으로 그의 모더니즘 시 연구의 궤적

함. 그리고 1986년에 나온 재판은 ‘『고현학』 재판’으로 표기함.

4) 구연식,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동아논총』 19(1), 동아대학교, 1982; 구연식, 「이미지즘(Imagism) 시 연구—김광균의 「와사등」을 중심으로」, 『대학원논문집』 8(1),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4.

5) 간호배의 「구연식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방법론」, 『비평문학』 75, 한국비평문학회, 2020; 간호배, 「구연식 시에 나타난 감각이미지」, 『문화와 융합』 44(6),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김청우, 「구연식의 『검은 산호의 도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80, 우리문화회, 2023. 그리고 『전집』 2부에 실린 원고들.

을 살펴보고,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적 오브제’라는 독창적이고 주목할 만한 초현실주의 시론을 제시한 구연식의 문학적 도정을 살피고자 한다.

2. 현대예술을 고찰하는 고현학

1) 고현학이란 무엇인가?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론을 살피기 위한 전제로, 그가 현대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그의 주저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에 소개된 ‘고현학(考現學)’은 그의 시 연구 입장을 잘 담아내고 있다. ‘고현학’하면 박태원을 떠올리기 쉽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그동안 “모테로노로지오를 게을리 하기 이미 오래다”라고 말하며, “서소문정 방면”을 “답사”라고 할까 생각한다.⁶⁾ 여기에 나오는 ‘모테로노로지오(modernologie)’는 고현학을 일컫는 말이다. 박태원은 작가로서 자신이 가진 상상력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풍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일일이 대학노트에 기입하는 자신의 창작방법론을 고현학이라고 불렀다.⁷⁾ 박태원은 일본 유학 당시 곤 와지로(今和次郎)의 고현학적 방법을 접하고,⁸⁾ 그것을 자신의 창작방법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김윤식은 박태원의 소설을 분석하는 글에서 “고현학을 현대인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현대의 풍속을 분석 해설하는 학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⁹⁾ 권은이 지적한 것처럼 박태원의 고현학적 방법은 세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세상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더니즘보다는 리얼리즘, 특히 서구 자연주의 문학의 과학적 방법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¹⁰⁾

구연식은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가 “한국시의 현대적 내용 연구”이며,

6)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05, 111쪽.

7) 박태원, 「옹노만어(擁爐漫語)」,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278쪽.

8) 김홍식, 「박태원 문학과 고현학」,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음, 2010, 25쪽.

9)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135쪽.

10)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21쪽.

고현학은 고고학(考古學)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그 의미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¹¹⁾ 이 말에 근거해 본다면 고현학은 현대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는 한국시에 나타난 현대성을 연구하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이것을 수용한 예술적 경향은 이 둘에게서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박태원의 고현학이 면밀한 관찰과 묘사에 기초한 자연주의적 경향을 드러내었다면, 구연식의 고현학은 외면의 정치한 묘사에 머무른 자연주의를 과거의 유산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2) 예술에서의 현대

구연식은 18세기 낭만주의 이후(넓게는 15세기의 문예부흥 이후)를 근대로 보고, 1900년 이후를 현대로 본다.¹²⁾ 그리고 현대의 성격을 예술상에 나타난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첫째, 문예사조 상에서의 변화다. 그는 근대의 대표적인 예술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꼽는다. 이 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많은 모순을 드러낸 자본주의·시민사회·산업사회의 병폐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 둘은 자연(현실)과 같은 객체를 중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여기에 반발하여 인간 자체와 인간의 내부세계를 구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대한 상징주의는 그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근대와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한 문예사조였고, 그 뒤를 잇는 미래파·입체파·다다이즘·초현실주의 등의 사조가 현대의 문예사조다. 여기서 구연식은 근대예술이 자연이라는 객체를 탐구하는 예술인 반면, 현대예술은 인간이라는 주체를 탐구하는 예술이라고 규정짓는다.

둘째, 예술정신에 대한 설명이다. 구연식은 사회·정치·경제 등의 환경이 인간을 구속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뚜렷해진 시기를 현대로 규정지으면서, 현대예술에는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잘 나타난다고 본다. 그는 이것을 “인간정신의 위대한 자유의 절

11) 정영일, 「작가탐방: 시인 구연식」, 『문예시대』 1, 1993.11(『전집』, 680쪽).

12) 『고현학』, 35쪽; 구연식,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동아논총』 9, 동아대학교, 1972, 1쪽.

규”라고 부르며, 이 점이 미래파·입체파·다다이즘·초현실주의 등의 현대예술에 잘 드러난다고 말한다.

이 ‘자유’나 ‘정신의 자유’는 초현실주의의 용어이다. 초현실주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변함없는 원칙은 ‘인간의 자유’다.¹³⁾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¹⁴⁾를 강조한 인물도 바로 브르통이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상해냄으로써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을 해방’시키려고 했다.¹⁵⁾ 나아가 초현실주의자들은 강력한 정신의 힘을 확보하여, 현실에 구애되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신이 상상해낸 삶을 살려고 했다.¹⁶⁾ 그는 초현실주의가 현대의 전위예술을 종합했다는 입장¹⁷⁾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예술의 정신을 초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신의 자유’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인 측면이다. 그는 현대예술에는 현대의 예술정신을 실천 하려는 새로운 인간형이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간성, 추상예술, 비생명성, 동시공존성, 상징성, 그리고 현대예술에서 두드러진 7D¹⁸⁾ 등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구연식은 이상의 방법들이 현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존재를 잘 구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본다.¹⁹⁾

이렇게 그는 문예사조상의 변화, 예술정신의 변화, 방법론의 변화 등에서 현대를 규정짓는다. 즉, 현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간이 외부현실에 대한 모사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를 주목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예술정신과 새로운 방법론으로 무장한 예술이 전면화된 시기를 현대로 보고 있다.

13) 황현산, 「해설—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초현실주의 선언』(앙드레 브르통 저), 미메시스, 2012, 47~48쪽.

14) Andre Breton, *Manifestes du Surre'alisme*, 황현산 옮김,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63쪽.

15) 황현산, 앞의 글, 10쪽.

16) 황현산, 앞의 글, 14~27쪽.

17) 구연식, 「나의 문학 데뷔 전후」, 『한글문학』, 1997년 가을호(『전집』, 694쪽).

18) 7D는 다음과 같다. 遺棄(Délaissement), 頹廢(Décadence), 退化(Dégénération), 變形(Déformation), 轉位(Dépaysement), 顛倒(Déracinement). 『고현학』, 28쪽.

19)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1~3쪽.

3)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미적 모더니티

구연식은 이러한 현대예술이 태동하는 발생론적인 맥락을 주목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20세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 모순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 점은 다다이즘을 그 태생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다다이즘이 발생하는 시기가 일찍이 자본주의를 이룩한 서구 열강들이 20세기에 이르러 자국 내에서 억제당한 자본축적을 만회하기 위해 식민지·반식민지의 개척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정복·지배·이익을 위한 전쟁을 벌이는 시기임을 주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몽이성과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일찍이 국민국가라는 정치형태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이룩한 서구 열강이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는 이 시기를 다다이즘의 발생 배경으로 주목한다.²⁰⁾

그는 그러한 모순이 식민지에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본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자본가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민주주의가 외면당하고, 개인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과학·합리주의·물질주의 앞에 인간성은 여지없이 상실되었다고 말한다. 구연식은 한국문학의 현대는 1930년대 이후 이상의 문학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는 이상의 문학 역시 철저히 발생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만주사변, 프로문학에 대한 탄압, 자유의 말살, 불안과 암흑, “광녀(狂女)의 두발 같은 병든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상의 다다 문학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본다. 예술에서의 극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다이즘이 극한적인 시대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¹⁾

나아가 그는 현대예술을 이러한 병폐와 위기에 맞선 예술로 본다. 예컨대 다다이즘을 “20세기의 시대고를 극복하려는 예술상의 혁명이며” “세계전쟁을 일으킨 문화에 대한 항의”²²⁾이며, “정치·사회·문화면에 누적된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²³⁾에서 일어난 문예사조로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다다의 태동지인 취리히에 모인 다다리스트 청년들의 반전주의적 경향을

20) 『고현학』, 66~67쪽.

21) 『고현학』, 67·72·98·164쪽.

22) 『고현학』, 68쪽.

23) 『고현학』, 68~69쪽.

주목하고, 부르주아 질서를 조롱·증오·해체·변혁하려 했던 다다이스트들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상 역시 병든 시대를 치료하겠다고 나선 인물로 보고 있다.²⁴⁾

① 현실적이며 현실의 근원적 파악에서 허무나 향락이 나타난 것이지 허무나 향락이 현실 파악에 선행한 데서 다다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고현학』, 87쪽)

② 다다운동이 우발적이고 젊은 다다이스트들의 일시적 작란, 발광, 호기심에서 파괴와 부정과 허무를 표방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은 그 시대와 사회의 피조물이며 복잡하고 무한한 시대정신을 제시하려 하는 동시에 피투성이의 손과 심장으로 시대의 지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고현학』, 69쪽)

그래서 구연식은 ①과 같이 다다에 나타난 허무·향락에 대한 독해의 초점을 허무·향락 자체가 아니라, ‘허무·향락이 현실과 관계 맺는 양상’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②와 같이 다다이즘이 시대의 산물이자 그러한 시대를 극복하려는 정신을 제시한 예술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구연식은 현대예술의 발생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돌파해나가려 했던 현대예술의 고투를 주목한다.

칼리니스쿠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 문명사에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적 모더니티’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형태의 모더니티가 존재해왔다.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진보의 원리, 과학과 기술의 유용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시간에 대한 관심, 이성 숭배, 자유의 이상 등을 토대로 승승장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존되고 증진되어 왔다. 반면 미적 모더니티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철저한 거부 및 부정적인 열정에 기초한 모더니티라고 할 수 있다.²⁵⁾ 구연식 역시 현대예술을 미적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보고

24) 『고현학』, 71·77·83·89·98쪽.

25) Matei Cal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이영옥 외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4 2판, 53~54쪽.

있다. 모더니즘 예술에는 진보·과학·이성·자유 등으로 위장했지만, 결국 억압적이었고 폭력적인 양상을 드러낸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 열정,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자유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구연식의 고현학은 이러한 현대예술을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현학은 현대예술을 그것을 태동시킨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바탕으로, 현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현대적 인간의 고투가 담긴 예술을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모더니즘 시 연구

한국 모더니즘을 ① T.E. 흄(Hulme),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이미지즘(Imagism) 계열로 김광균, 김중환, ②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은 아니고 지성이며 과학이라고 보는 I.A. 리차즈(Richards), T.S. 엘리엇(Eliot), 하바드 리드(Habard Read) 등의 주지주의(Intellectualism) 계열의 최재서, 김기림, ③프랑스 다다이즘(Dadaism)의 T.차라(Tzara)와 쉬르(Sur)문학의 A.부르통(Breton) 계열의 이상, 이시우, ④일본서 일어난 신감각파인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계열의 정지용 등 4계열로 분류하여 김광균의 이미지즘 연구, 정지용의 신감각파 연구, 이시우와 삼사(三四)문학, 초현실주의와 이상 연구 등의 논문을 썼으나 김기림, 최재서 연구까지 미쳐 못하여 미완성이다.²⁶⁾

이상의 전제 하에 구연식은 한국 모더니즘 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모더니즘을 크게 네 계열로 분류한다. 이미지즘, 주지주의, 다다·초현실주의, 신감각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주지주의를 제외한 세 경향을 연구한다. 연구는 다다·초현실주의, 신감각파, 이미지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경향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26)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문학도시』, 1998년 가을호(『전집』 704쪽).

1) 다다·초현실주의 시 연구

구연식의 시 연구는 전위시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 전위시는 그가 가장 역점을 둔 연구분야로, 여기에는 전술한 고현학적 입장이 잘 나타난다. 「한국 다다이즘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1975년에 발표된 구연식의 박사논문을 재수록한 논문으로, 분량이나 질적 깊이로 보았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구연식은 이상 시를 다음과 같이 입체파·미래파·다다이즘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그는 입체파 시의 방법론을 ‘시의 조형화·형식화’ ‘사물의 분석·분해와 재구성법’ ‘동시공존법’ ‘기하학적 추상법’으로, 미래파 시의 방법론을 ‘역동주의의 시’ ‘자유어’ ‘무선상상(無線想像)’으로 나누어 살핀다. 그는 입체파와 미래파가 전통예술의 문법에 맞서는 새로운 예술정신으로 충만해 있으며,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 아래 이상 시에 드러난 시의 조형화, 동시공존, 역동주의, 자유어를 분석한다.

그 뒤 그는 입체파와 미래파의 영향 아래 형성된 다다이즘을 소개하는데, 「한국 다다이즘의 비교문학적 연구」라는 논제에 걸맞게 다다이즘에 대한 그의 연구는 본격적이고 치밀하다. 그는 다다 운동이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었다는 전제 아래, 다다이즘이 세계 각국(스위스 취리히, 미국의 뉴욕,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 일본)을 경유하여 식민지 조선에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그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다다이즘을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일본 다다이즘을 이끌며 다다를 선(禪)사상과 결부시킨 다카하시 신이치(古橋新吉)를 중심으로 일본의 다다이즘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카하시에게 영향을 받았던 고한용을 중심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다다이즘을 집중 소개한다. 그리고 다다이즘의 핵심 방법에 해당하는 ‘무의미’와 ‘우연’을 척도로 하여 이상의 이름이 내포한 무의미, 이상 시에 드러난 무의미와 우연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이상 시가 다다이즘의 작품으로 성공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²⁷⁾

이렇게 이 논문은 다다이즘을 제목으로 내세웠지만, 다다이즘뿐만 아니라

입체파와 미래파와 같은 전위예술사조도 함께 살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 시를 자동기술법에 의한 무의식적 기술방법으로 해석하고, 우연을 오브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초현실주의의 방법론도 활용하고 있다.²⁸⁾ 즉, 그는 유럽에서 발흥한 전위예술사조를 거의 동원하여 이상 시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어·프랑스어·독일어·영어·일어 등 세계 각국의 원서들을 입수하고, 해독이 어려운 것은 일본어 번역본에 의지하여 독해를 하고, 한국어 번역이 없는 것은 자신이 직접 번역하여 논문에 수록한다.²⁹⁾ 그의 저서에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다양한 참고문헌과 각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구연식은 일본 다다이스트 다카하시 신이치, 구인회 동인 조용만, 삼사문학 동인 조풍연, 후반기 동인 김규동 등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거기서 얻은 답변을 연구저서에 수록하는데, 이것은 다른 논자들의 저서에서 인용³⁰⁾되기도 한다.

전위시 연구는 시 전문지 『시문학』에 연재되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으며,³¹⁾ 이승훈은 그의 『시작법』에서 입체파와 미래파를 소개할 때,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를 대거 인용하기도 한다.³²⁾ 그리고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는 초현실주의 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로 언급되기도 한다.³³⁾

그런데 다다이즘이 1931년 이상에 이르러 작품화되었다고 한 점³⁴⁾은 재고할 부분이다. 다다이즘은 이상 이전에 김여수(박팔양)나 임화 등이 이미 시

27) 『고현학』, 85~156쪽. 신진은 구연식의 학술작업이 ‘초현실주의 문학의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비교문학적 연구를 하였다는 점, 초현실주의 문학의 발생론적 배경이나 과정을 연구해서 우리 문학에 적용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김인섭, 「감각의 바다에서 피어나는 생명시학」, 『예술부산』 5, 1998년 봄호(『전집』, 596쪽).

28) 『고현학』, 127·142쪽.

29) 『고현학』, 15쪽.

30) 간호배, 「한·일 초현실주의 시 비교 연구」,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394쪽; 박근영, 「한국초현실주의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49~50쪽.

31)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문학도시』, 1998년 가을호(『전집』, 705쪽).

32) 이승훈, 『시작법』, 문학과비평사, 1988, 284·288·295·308·310쪽.

33) 문혜원,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44~45쪽.

34) 『고현학』, 153쪽.

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여수는 이성애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현대문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윤전기와 4층집」(1924)을 쓴 바 있으며, 임화 역시 「화가의 시」 「지구와 '박테리아」 「탱크의 출발」 「담—1927」과 같이 전위예술의 기법에 의해 반항의식과 부정의식을 드러내었으며, 문학사에서 다다이즘으로 분류되는 시들을 1927년에 발표한 바 있다.³⁵⁾

아마도 이 작업을 진행했던 시기가 월북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가 풀리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구연식은 김여수나 임화 등 사회주의 문인들이 쓴 전위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더니스트였던 정지용과 김기림마저 “정지○, 김기○”³⁶⁾과 같이 복자로 처리할 만큼 엄격한 시대였기 때문에, 구연식은 임화의 전위시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이후 구연식은 초현실주의 문학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초현실주의에서 구연식이 핵심방법론으로 꼽는 것은 단연코 ‘데페이즈망’(dépaysement, displacement)이다. 데페이즈망은 “일상적인 의의면의 연관성이 전연 없는 동떨어진 사물끼리가 서슴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사물의 존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관계를 박탈해 버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³⁸⁾ 이 용어를 이시우는 ‘절연(絶緣)’으로 번역하였고, 조향은 ‘전위

35) 박인기, 『한국현대시의 모더니즘 연구』, 단대출판부, 1988, 156~162쪽;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48~57쪽; 유중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25~26쪽; 박정선, 「식민지 근대와 1920년대 다다이즘의 미적 저항」, 『어문논총』 37, 경북어문학회, 2002, 118~112쪽. 구연식은 “자유당 시절, 우리 사회의 부패상이 박테리아와 같다”는 의미에서 「요화 7」을 쓴 바 있는데(『전집』, 725쪽, 필자가 제목을 바로잡음 「박테리아 7」 → 「요화 7」), 임화 역시 복본주의의 강한 영향 아래 아나키즘에 대한 적대감을 전위예술의 형식을 빌어 드러낸 「지구와 '박테리아」(1927)를 쓴 바 있다.

36)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11쪽.

37)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남·월북 작가·예술인들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암암리에 금기시되었다. 한창 전쟁 중이던 1951년 공보처에서 ‘월북작가 작품 판매 및 문필활동 금지 방침’을 내면서 제재가 시작되었고, 1957년 월북작가 작품의 전면적인 출판·판매 금지가 시행된다(김성수, 「재·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의 연구사·문화사적 의미」, 『상허학보』 55, 상허학회, 2019, 13~14쪽). 구연식은 대학 시절에 임화의 『현해탄』을 읽었다고 한다(정영일, 앞의 글, 『전집』, 679쪽). 아마도 사회주의 문인에 대한 연구나 독서가 법으로 금지되기 이전 시기에, 구연식은 『현해탄』(동광당, 1938년)을 입수하여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집에는 임화가 20년대에 쓴 다다이즘 계열의 작품들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구연식은 임화의 다다이즘 시를 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연식은 임화의 시를 언급하면서 “자료의 부족”(『고현학』, 106쪽)을 호소한 바 있다.

(轉位)로 번역한 바 있다. 간호배가 구연식의 첫 시집 『검은 산호의 도시』에 데뻬이즈망과 오브제가 전면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듯이,³⁸⁾ 데뻬이즈망은 그의 초기 시의 주된 창작방법으로 활용되었는데, 그는 데뻬이즈망이 상상력의 무한확대를 통해 얻어진 방법론이고,⁴⁰⁾ 현실에서 탈선하여 광대무변한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론⁴¹⁾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삼사문학』과 초현실주의(1975)는 삼사문학 동인들의 시를 초현실주의와 관련지어 논의한 연구다. 구연식은 이시우와 신백수의 시가 이상의 시와 동계에 속하며 이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시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시우의 「절연하는 논리」를 한국의 초현실주의 선언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시우의 초현실주의 이론은 오늘날의 이론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⁴²⁾

특히, 여기서 구연식은 이시우가 「절연하는 논리」에서 절연을 ‘전혀 관계 없는 낱말, 절연이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낱말의 이미지를 결합한 복수적 이미지’로 사유하고 있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절연되어있는 사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기이(奇異)함이 증대되고, 무아와 무의식의 세계에 돌입하여 소설과 단절된 순수한 포에지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점을 주목한다. 나아가 구연식은 이시우가 말한 절연이 소설과의 단절에 그치지 않고, 고루한 습관·전통·현실의 합리주의·윤리도덕·진부함과 단절이라는 의의를 갖는 것이기에, 그것은 인간정신의 해방과 예술혁명의 미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한다.⁴³⁾

삼사문학 동인에 대해서는 구연식 이전에도 백철, 조연현, 조풍연 등의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논의들은 문학사 혹은 문단사적 차원의 단편적인 언급들

38) 『고현학』, 174쪽. 이것은 조향이 「데뻬이즈망의 미학」(『한국전후문예시집』, 신구문화사, 1961, 417쪽)에서 밝힌 정이다. 이후 구연식은 「다다이즘·초현실주의 개관」(『고현학』 재판, 251쪽)에서 데뻬이즈망의 출처가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앙드레 브르통이 르베르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에 있다고 말한다.

39) 간호배는 첫 시집에서 데뻬이즈망이 나타난 시가 33편, 오브제 기법이 나타난 시가 22편이라고 분석한다. 간호배, 「구연식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방법론」, 『비평문학』 75, 한국비평문학회, 2020, 62~76쪽.

40)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17쪽.

41) 구연식, 「조향 연구」, 『재부작고시인연구』, 아성출판사, 1988, 58~59쪽.

42) 『고현학』, 164·184쪽; 「조향 연구」, 57쪽.

43) 『고현학』, 174~175쪽.

이었다. 이에 반해 『『삼사문학』과 초현실주의』는 『삼사문학』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⁴⁴⁾

「조향 연구」는 조향의 시를 초현실주의와 관련지어 분석한 글이다. 여기서 구연식은 조향의 데페이즈망의 미학을 소개한 뒤, 초기 이후에는 시종일관 초현실주의 시를 창작한 조향의 시를 오브제(Object)의 시, 편집광적 기법에 의한 시, 이미지·조형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조향의 「목요일의 하얀 늑골」을 초현실주의 이론을 철저히 실천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 작품을 오브제 시의 관점에서 집중 분석한다. 데페이즈제(depaysse)는 데페이즈망의 동사형에 해당하는 말인데, 데페이즈된 하나하나의 사물이 바로 ‘오브제’다. 그래서 구연식은 오브제 시가 일반적인 사물의 뜻을 지워버린 무의미 상태의 오브제에 의해 구성된 시라고 말하면서, 「목요일의 하얀 늑골」에는 이러한 오브제가 전면화되어 있다고 본다. 나아가 조향의 시가 의미를 포기하고 회화적 이미지로 구성된 회화적 오브제를 전면화한 점 역시 주목한다.

구연식은 고전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⁴⁵⁾ 이 중에서 「민요에서 본 절연하는 미학」(1977)은 한시·시조·민요에 나타난 비약적인 표현을 데페이즈망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여기서 그는 민요 「통타령」에 나타난 낱말들(“신통 밥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홀름통……”)이 앞뒤의 낱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기술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단어법(자유연상)에 의한 절연’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시의 기본 구성원리에 해당하는 ‘기승전결’ 중 ‘전(轉)’을 ‘절연하는 시행’으로 본다. 또한 시조 종장의 첫 세 글자 역시 주로 전체 내용과 독립된 어휘로 제시된다는 측면에

44) 오세영은 『삼사문학』 동인들을 초현실주의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 김용직의 「1930년대 후반기의 한국시」(『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302~308쪽)와 구연식의 『고현학』을 꼽는다.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137쪽.

45) 구연식, 「민요에서 본 절연하는 미학」, 『고현학』; 구연식, 「한국 민요에 나타난 해학적 고찰」, 『동아논총』 15(1), 동아대학교, 1978; 구연식, 「우리 민요에 나타난 모성애」, 『민속문화』 2(1), 동아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한국민속문화연구소, 1980; 강용권·김무조·구연식·강성일, 「경남 내륙지방의 민속문화 조사연구」, 『동아논총』 10, 동아대학교, 1973; 강성일·강용권·구연식·김무조·정상박, 「경남 동부지역 민속문화 조사연구」, 『석당논총』 2,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78. 아마도 구연식은 고전문학자들과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문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 그것을 절연이 드러난 독립어로 본다. 그리고 민요 「남해가」에서 “대동강이 막히네”라는 시행이 앞의 시행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 절연이 드러난 시행으로 본다.⁴⁶⁾

“프로이트 이전에도 이러한 원리—자유단어법[인용자]—에 맞는 문학이 존재해 왔”다는 말이나, “이런 방법이 현대에 와서는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격렬한 방법으로 바뀐다”는 발언들을 통해, 그는 절연으로 볼 수 있는 이 표현들이 고전문학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이나 오브제의 시법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고 말한다.⁴⁷⁾

현대예술의 기법인 절연이 이미 한국 고전문학의 전통에 내재해 있었음을 주목하려는 이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처럼, 이것을 한국문학의 연속성을 논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현실주의의 맹아가 한국 고전문학에도 있었고 그것이 내재적으로 발전해온 것임에 주목하여, 초현실주의가 단순히 이식된 것이 아니라 전통과의 연속성을 가졌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연식의 입장은 이보다는 다음 2가지 관점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간의 자유 추구’라는 초현실주의의 원칙이 시간을 초월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절연이 현실에서 탈선하여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원치 않는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심정이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인간들도 공유하고 있는 인간 공통의 심정임을 강조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고현학』, 190~195쪽. 이상의 사례들은 초현실주의의 방법이 고전문학에 드러난 점을 찾기 위한 의욕적인 노력의 산물이었고 기발한 착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의 사례들은 ‘비약’이 드러난 표현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은 작품 전체의 유기적인 질서 아래 놓여 있었고, 거기서 데페이즈망이 갖는 단절이나 돌발적인 경이를 찾기는 어렵다. 「조항 연구」에서 구연식은 조항이 말한 ‘전위’라는 용어가 한시 ‘기승전결’의 ‘전(轉)’에서 따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전’에는 ‘비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데페이즈망이 비약적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이고 경이적이며 돌발적’이기 때문에, ‘전(轉)’이 데페이즈망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조항 연구」, 58쪽). 이러한 지적은 구연식 스스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47) 『고현학』, 177~178·193쪽.

이런 점은 그가 고전문학을 대하는 다음의 태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는 민요에는 서민생활의 호흡에서 발생한 생명이 숨김없이 약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요가 현대성을 지녔다고 평가한다.⁴⁸⁾ 여기서 그가 현대성을 지닌다고 보았던 생명의 약동이란 고통스러운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려는 열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해학성을 “부조리의 사회, 절박한 현실과 고된 삶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생활감정”으로 읽는다.⁴⁹⁾ 이때의 “여유”는 강력한 정신의 힘을 확보하여 현실에 구애되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드러내는 초현실주의자의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연식은 고전문학에서 환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주목하였는데, 고전문학을 절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것은 새로운 방법론 구축과 관계있다. 후술하겠지만 그는 전위예술의 최대 과제로 방법론의 쇄신을 꼽고 있다. 그런데 그는 고전문학이 현대문학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⁵⁰⁾ 토착성과 융합된 이승훈의 시가 모더니즘 시의 시적 진화를 이끌었다고 칭찬한다.⁵¹⁾ 여기에 근거해 본다면, 고전문학에서 절연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새로운 방법론 개척과 연관될 수 있다. 즉, 초현실주의가 고전문학과 같은 토착적인 유산과 융합된다면 그가 전위예술의 과제로 생각하는 방법론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점들 때문에 그는 고전문학을 절연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2) 신감각파 시 연구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는 이미지즘 계열 시인으로 분류되던 정지용 시를 일본 신감각파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한 연구다. 구연식은 신감각파가 ‘시에서 신기한 감각성의 표현을 강조하는 시인들’을 지칭한다고 말하면

48) 『고현학』, 177쪽.

49) 『고현학』, 191쪽.

50) 「이미지즘 시 연구」, 61쪽.

51)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21쪽.

서, 신감각파를 ‘이성의 논리’에서 ‘감각의 논리’로 문장을 바꾸어 선명한 색채와 회화성을 선보인 프랑스 소설가 모오랑(Paul Morand)의 영향 아래 출발한 일본의 유파로 본다.⁵²⁾

정지용이 일본의 신감각파에 부정적⁵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연식은 정지용이 일본 유학시절 신감각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감각 혁명으로서의 기교’(주객일여의 객관주의, 의인화의 기교, 촉각어의 기교), ‘다다적인 발상’(반예술적인 발상, 우연의 발상, 표현주의적 기미), ‘관상(觀賞)에의 희열’(간절체, 시어의 개성미, 지성미)이라는 관점에서 정지용 시를 분석한다.

신감각파를 이미지즘의 영역 아래 있는 유파로 보는 논자들이 많다.⁵⁴⁾ 그러나 구연식은 요코미즈 리이치(横光利一)의 견해를 중심으로 신감각파를 이해하면서, 신감각파를 이미지즘보다는 전위예술의 영향 아래 있는 유파로 본다. 요코미즈는 신감각파를 이끌었던 인물로,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될 만큼 감각적이고 새로운 문장을 선보이는 동시에, 다다이즘 시를 연상케 할 만한 작품을 쓴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신감각파를 미래파·입체파·다다이즘 등의 전위예술마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인물이다.⁵⁵⁾ 더불어 구연식은 신감각파가 예술의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 했던 서구 전위예술의 정신과 방법을 수용한 유파임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신감각파에서 선보인 문장의 혁신과 감각적 표현이 서구 전위예술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정지용의 시는 선명한 감각적 표현을 앞세운 이미지즘 시가 압도적이지만, 초기시 「슬픈 인상화」에는 포멀리즘의 형태배열이 드러나고, 「파충류동물」에는 대소활자에 의한 시각적 효과가 드러나는 등 전위예술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구연식은 이 두 경향을 아울러 지칭하기 위해, 그리고 정지용

52)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14~15·25쪽.

53) 정지용 외, 「문인좌담회 1」, 『동아일보』, 1933.1.1.

54) 김종훈(『동아시아 ‘신감각파’의 출현과 전개 양상』, 『한국시학연구』 30, 한국시학회, 2011, 35쪽)과 이화진(『박태원과 신감각파, ‘감각’의 양상과 의미』, 『반교여문연구』 44, 반교여문학회, 2016, 292쪽)은 신감각파가 이미지즘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으며, 이미지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5) 김정훈, 「요코미즈 리이치의 문학적 ‘전향’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30(1), 한국일어일문학회, 1997, 215~217쪽.

시에 나타난 신선한 감각적 표현이 감각혁명으로서의 기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밑바닥에는 전위예술의 정신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정지용을 굳이 신감각파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 글에서 구연식은 이미지즘으로 분류되는 시인마저 전위예술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이것은 구연식 문학의 중심이 전위예술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3) 이미지즘 시 연구

「이미지즘(Imagism) 시 연구」는 현대가 이미지의 시대이고 문학에 있어서도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대라는 전제 아래, 김광균 시를 이미지즘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다.

여기서 구연식은 불연속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휴머니스트들의 착각(윤리적·종교적 세계를 넘나들며 절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비판하였으며, 이미지즘 운동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흠의 철학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고체적이고 간명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시 속에 드러낼 것을 주장하면서 이미지즘을 이끌었고, 이후 이미지의 정적인 성격과 단순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미지의 병치⁵⁶⁾를 통해 단일한 인상적 그림을 넘어서서 시의 입체적 구성을 추구한 소용돌이주의를 이끈 에즈라 파운드를 논의한다.

구연식은 흠과 파운드가 전통적 낭만주의의 서정시에서 벗어나 이미지즘 운동을 전개한 것과 같은 의도를 김광균의 이미지즘 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광균의 시에서는 시대고에서 비롯되는 냉혹함·공허감·고독·비애·향수·절망감 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훌륭한 이미지즘의 시가 ‘지적 정서적 복합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파운드의 말이 김광균의 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탁월한 회화성을 선보인 김광균 시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상성이 배제된 그의 시를 두고, 현대 시가 현대인의 의식을 배제한다면 현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56) 구연식은 이것을 ‘상가(上架)식 방법’이라고 표현한다. 「이미지즘 시 연구」, 49쪽

그는 김기림과 최재서의 주지주의를 주목하면서 현대문명의 위기에 맞서는 지성의 역할을 주목한 바 있다.⁵⁷⁾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연식은 지성의 작용이 선명한 이미지 생산에 머물면서 지성의 사회성을 배제해버린 김광균 시의 이미지를 비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지주의를 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회성이 결핍된 이미지즘과도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구연식의 이미지 분류이다. 그는 이미지의 종류를 ①정서적 이미지, ②조형적 이미지, ③관념적 이미지, ④초현실적 이미지로 분류한다. 그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인간·현실세계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신·절대의 세계와 무기물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미지로 보고 있다.⁵⁸⁾ ④는 독창적인 이미지 분류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도 전위예술을 강조하는 그의 문학관을 읽을 수 있다.

이상 소개한 구연식 모더니즘 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그의 모더니즘 분류는 독창적인 점이 있다. 모더니즘은 크게 영미계열(이미지즘)과 대륙계열(입체파·입체파·다다이즘·초현실주의 등)로 나뉜다.⁵⁹⁾ 그리고 여기에 주지주의를 더하여 모더니즘을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구연식은 여기에 더하여 신감각파를 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따로 분류하는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이런 분류 하에 구연식은 전위시에서부터 출발하여, 신감각파시를 거쳐 이미지즘시 쪽으로 시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둘째, 그는 모더니즘 시 연구의 중심을 전위시에 두고 있다. 그의 시 연구는 전위시에 대한 연구분량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지즘으로 해석

57)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전집』, 704쪽;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12쪽.

58) 구연식은 초현실적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꿈·영적 계시 등이 현실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임을 강조한다. 이 발언은 초현실주의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축소시킨 현실의 모습을 복원하여 '현실과 비현실', '실제와 꿈' 같은 대립이 해소되는 전일성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 근거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를 그리기 위해 휴이 불연속한다고 했던 세계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현실적 이미지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59)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태학사, 1996, 22쪽; 김유중, 「영미 고전주의적 경향의 모더니즘 시론이 한국 현대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2002, 242쪽;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역락, 2002, 124쪽.

되는 신감각파도 전위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유파로 보고 있으며, 이미 지 분류에 있어서도 초현실적 이미지를 따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연식 모더니즘의 중심에는 전위예술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는 전위시 중에서도 그 중심을 초현실주의에 두고 있다. 그의 연구에는 입체파·미래파·다다이즘 등의 연구 분량도 상당했지만, 그는 초현실주의가 전위예술사조를 집대성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에게 있어 초현실주의의 전사(前史)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구연식은 자신이 공력을 기울여 연구한 다다이즘을 파괴·부정·무질서에 머무른 무책임한 예술로 보는 반면, 초현실주의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 예술로 보는데, 이 역시 그의 입장이 초현실주의에 경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초현실주의의 모토에 해당하는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라는 명명으로 전위예술을 포괄하는 점, 새로움을 추구하는 전위예술을 초현실주의로 명명한 점,⁶⁰⁾ 자신의 다다이즘 연구도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고쳐 말한 점,⁶¹⁾ 자신의 시 쓰기 저변에 깔린 방법이 초현실주의임을 거듭 강조하는 점 등에서, 그가 전위예술을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의 모더니즘은 주지적 성격이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4. 주지적 시론

1) 초현실주의와 주지적 방법

넓은 뜻에서 모더니즘은 현대적 예술로서 과거의 주정(主情)적 중세 기적 낡은 내용과 형식에서 벗어나 주지(主知)적 현대적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추구하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⁶²⁾

60) 구연식, 「내가 말하는 나의 시세계」, 『전집』, 717쪽.

61) 그는 이상의 작품을 『고현학』에서는 다다이즘 시라고 했는데, 「조향 연구」에 와서는 초현실주의 시이며, 이상이 1931년에 초현실주의를 수용했다고 말한다(「조향 연구」, 54쪽).

62)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12쪽.

주정적 인습을 깨뜨리고 주지의 문학론을 내세운 일군의 시인이 30년대 모더니스트들이다.⁶³⁾

구연식은 모더니즘의 네 계열이 모두 주지적인 내용과 형식, 주지적 문학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현대문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성을 내세웠던 주지주의와는 별개로, ‘주지’를 모더니즘을 포괄하는 상위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다와 초현실주의마저 주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다소 의아스럽다. 리드·리처즈·엘리엇·흙·파운드 등이 이끈 영미 모더니즘의 경우에는 이런 주지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만, 아방가르드 경향은 이와 반대로 반지성적인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유중에 의하면, 영미의 모더니즘은 작품 내에 질서와 조화의 감각을 부여할 수 있는 지성의 작용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반면에, 유럽의 모더니즘은 무의식적인 차원에 근거한 자유로운 연상 작용과 자동기술, 기존의 전통과 질서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과 거부 등 반지성적인 국면이 강하게 나타난다.⁶⁴⁾ 가령, 앙드레 브르통만 하더라도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로서의 자동기술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도성이나 사전 숙고의 흔적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고, “절대적 비순응주의”와 “완전한 상태의 방심”을 주장했다.⁶⁵⁾ 나아가 브르통은 시가 ‘지성의 붕괴’라고 단언하기까지 한다.⁶⁶⁾

다다나 초현실주의마저 주지적인 것으로 보는 구연식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일본 주지주의 논의로 우회할 필요가 있다. 주지주의는 원래 철학

63)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39쪽.

64) 김유중, 「시와 근대적 주체」, 『신생』, 2004년 가을, 225~227쪽. 박현수 역시 유럽의 초현실주의와 같은 아방가르드 계열은 주지주의와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다. 박현수, 『한국 모더니즘 시학』, 신구문화사, 2007, 33쪽.

65) Andre Breton, 앞의 책, 89~90·104~105·118쪽.

66) 송재영, 「해설: 다다이즘과 쉬르레알리즘 개관」, 『다다/쉬르레알리즘 선언』(트리스타 자라·앙드레 브르통), 문학과지성사, 1987, 250쪽.

용어로 감정이나 의지보다는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지적인 것을 중시한다. 문학상에서 이 용어는 ‘작가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지적인 경우’에 사용되고, ‘지성을 방법으로 하여 감정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일컫는다.⁶⁷⁾ 그런데 주지주의는 영미문학 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문학 용어다.⁶⁸⁾ 일본에서 이 용어는 문학에 있어 다분히 지적인 방식을 존중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20세기 영미문학의 일반적인 경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⁶⁹⁾

그런데 일본 문단에서 주지주의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와시론(詩と詩論)』의 경우, 주지주의는 영미 모더니즘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아방가르드마저 그 테두리 안에 포함시킨다.⁷⁰⁾ 『시와시론』의 논자들은 초현실주의에서 다루는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나름의 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 비밀스런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그것의 질서화를 시도한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며, 초현실주의를 정신분석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탄생한 사조로 보고 있다. 이런 질서화와 과학적 태도에 대한 관심은 바로 주지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현실주의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고도의 지적 사고를 중시하는 주지주의의 이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⁷¹⁾

이 점은 『시와시론』의 주요 동인이었던 아베 도모지(阿部知二)에게서도

67)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175쪽.

68) 오세영, 앞의 책, 126쪽. 김유중, 「영미 고전주의적 경향의 모더니즘 시론이 한국 현대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245쪽;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176쪽; 이윤섭, 「한국의 주지주의와 영미 모더니즘」, 『동서 비교문학저널』 17, 한국동서 비교문학학회, 2007, 317~318쪽.

69) 김유중,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176쪽. 주지주의는 지성의 절대적 우위를 승인하고, 유럽문명의 전통을 재생하며, 미와 정신의 질서와, 권위의 회복을 제일의 목표로 하는 문학적 태도를 일컫는다는 문덕수의 정의(『한국모더니즘 연구』, 시문학사, 1981, 54쪽) 역시 일본 주지주의자 千葉宜一の 정의에 해당한다.

70) 김유중, 「한·중·일 삼국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개념적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14쪽. 손정수 역시 『시와시론』은 초현실주의와 주지적 태도가 하나의 운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시운동이었다고 말한다. 손정수, 앞의 책, 135쪽.

71) 김유중, 「한·중·일 삼국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개념적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15~16쪽.

확인 가능하다. 그는 ‘예술에 있어서 존중되는 것은 깊은 혼돈을 가장 긴밀한 질서에 의해 표현하는 힘’이라고 보고, 주지적 방법이 이 혼돈(감정의 심연, 잠재의식, 신비)을 우리의 의식성에까지 명료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주지적 방법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영역에마져 질서를 부여하여 그것을 명료하게 파악해내는 방법으로 보았다.⁷²⁾

현대예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통점의 하나로서 주지적 경향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지주의(Intellectualism) 경향은 강렬한 질서에의 지향이었고, 개별보다 보통, 발전보다는 진화, 영감보다는 과학을 앞세우려는 노력이었다. (중략)

이러한 지성의 작용의 심층에는 인간내부의 정신과 심리가 근원이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학, 즉 정신 분석학, 성격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고 이 원리와 법칙을 예술창조에까지 응용하게 되었다.⁷³⁾

구연식의 초현실주의 이해도 다분히 주지적인 측면이 있다. 구연식은 주지적 경향이 강력한 질서에의 지향이며, 영감보다는 과학 등을 앞세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지성은 인간 내부의 정신과 심리와 같은 심층적인 차원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분석학과 성격학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 원리와 법칙이 초현실주의와 환각예술과 같은 예술창작 영역에까지 응용되었다고 말한다. 즉, 구연식은 지성이 혼란스러운 인간 내부의 정신과 심리마저도 과학적으로 질서화할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가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

72) 박현수, 앞의 책, 31~32쪽·277쪽; 김진희,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 연구 I」, 『한국문학연구』 5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379쪽; 전세진, 「1930년대 주지주의 이론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소고」,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257~258쪽; 기시까와 히데미, 「‘주지주의의 문하론’과 ‘주지적 문하론」,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212쪽. 주지주의가 질서와 관련 있음은 다음 논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는 주지주의가 사상적으로 새로운 합리성, 질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문덕수는 여기에 근거하여 주지주의가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는 주의이며, 주지가 사물의 질서 또는 관계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한다(문덕수, 앞의 책, 57~58쪽). 구연식이 연구했던 이시우 역시 “主知의 作用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秩序라는 것을 생각”하고 “秩序를 要求한다면 이것도 勿論 主知의 作用”이라고 말한다. 이시우, 「SURREALISM」(『삼사문학 5』, 세기사, 1936), 『원본 『三四文學』』(간호배 편저), 이회, 2004, 302쪽.

73) 구연식, 「현대의 Open Form 예술」, 『지성의 해변』, 시로, 1985, 161~162쪽.

있다는 관점에 서있다. 이 점은 「가을과 오피스·오후·휴게」에 나타난 자신의 초현실주의 시작법을 소개한 아래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휴전 직전은 아직 불안과 절망이 가시지 않고 오피스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황량하고 쓸쓸한 가을 황혼의 풍경을 방불케 한다. 그러한 풍경의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토막토막된 의식의 흐름을 모자이크(mosaic)하여 한 편의 시를 완성시켜보려 했다. (중략)

날말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취사선택한다. 이미지의 파편들이 의식의 불연속(不連續) 속에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⁷⁴⁾

휴전 직전 황량함과 쓸쓸함으로 채색된 풍경 속에서 그는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풍경들을 쫓아 혼란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날말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이 내면풍경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우선, ‘불연속의 연속’을 이루면서 전개되는 의식의 흐름⁷⁵⁾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이미지들과 접속되지 않는 파편적 이미지를 고의로 나열한다. 모자이크처럼 쪼라주된 이 이미지들의 연속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미지의 파편들이 의식의 불연속(不連續) 속에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말처럼, 구연식은 여기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모자이크에서 이질적인 부분들이 모여 전체의 조화로운 형상이 드러나듯이, 그는 이 파편적 이미지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일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단어들을 취사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는 쉽사리 언표화하기 어려운 인간 내부의 심층적인 영역(황량한 풍경 속에서 불안과 절망의 정서에 사로잡힌 인간 내면의 풍경)을 드러낸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초현실주의 시에 ‘혼란을 규제하는 통일적인 질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의식적 작업을 수행했다.⁷⁶⁾

74)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전집』, 701쪽.

75) 『고현학』, 190쪽.

76) 하루야마 유키오(香山行夫)와 김기림은 ‘본능’이 무의식적인 방법인 반면, ‘주지’는 의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덕수, 앞의 책, 229쪽.

그의 시는 초현실주의에서 그 방법을 배워왔을 뿐이지, 앙드레 브르통이 그즘 녹아빠졌던 그런, 지성을 홀랑 걷어버린 초현실주의 그것은 분명 아니다. 그의 시는 마음의 무위자연적(無爲自然的) 상태에서 전혀 올려진 언어가 아니고 말뚱말뚱한 지성으로 빚어낸 이미지들이다. 오히려 이미지즘 쪽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⁷⁷⁾

김용태의 독법 역시 이상의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태는 구연식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이미지가 지성을 걷어버린 상태에서 쓰인 이미지가 아니라, 명징한 지성으로 빚어낸 이미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 그의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한다고 말한다. 이성적 세계에 의해 감추어져 있어 쉽게 가시화할 수 없는 무형의 세계를 그의 시는 지성을 통하여 명료하게 파악하고 질서 있게 제시하여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즉, 김용태는 구연식의 초현실주의 시가 지성에 의한 의식적인 설계라는 방법에 입각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H. 알프(Arf)가 신문을 찢어 만든 시나 캔버스에 모래를 뿌려 만든 그림이나 하나의 갈등에 찬 상황을 나타낸 것인 동시에 이질적 물질의 결합이며 대립된 이념의 인간의 협력을 갈구하는 다다 본래의 통일에의 지향점의 발견이다. 그것은 불신과 신앙, 선과 악, 예술과 반예술, 질서와 무질서, 부정과 긍정, 존재와 비재 등으로 모순된 것이 전체를 형성하여 조화한다.⁷⁸⁾

나아가, 구연식은 파괴와 부정에 머무른, 무책임하고 방임상태에 있는 문학으로 보았던 다다이즘 예술에서도 이런 지성이 작동한다고 본다. 그는 신문을 찢어 만든 알프의 시를 예로 들면서, 이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들의 관계는 대립·갈등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 그것은 ‘모순된 것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즉, 다다이즘 역시 무질서와 혼란 이면에 그런

77) 김용태, 「불가시(不可視)의 가시화(可視化)」, 『목마 창립 10주년 기념 시와 시론집』, 1986(『전집』, 584쪽).

78) 『고현학』, 142쪽.

점들을 통일하려는 질서에 대한 갈망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을 ‘질서를 지향하는 지성’과 결부시켜 사유했기 때문에, 구연식은 다다와 초현실주의를 주지적인 것으로 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구연식의 초현실주의 이해는 일본 초현실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초현실주의는 유럽의 아방가르드가 주지적인 방법론으로 순화·변형된 것인데,⁷⁹⁾ 구연식 역시 다분히 그러한 관점에서 초현실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2) 설계와 조립으로서의 시

①詩人は 詩를 製作하는 것을 意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詩人は 한 개의 目的! 價値創造에 向하여 活動할 것이다. 그래서 意識으로 意圖된 價値가 詩로써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이-브」한 表現主義(人間主義)的 態度에 對蹠하는 全然 別個의 詩作上의 態度다. 나는 그것을 主知的 態度라고 부른다.⁸⁰⁾

②시는 심장의 울림으로 삶의 정한을 표현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건축과 같이 설계하여 언어로 조립하는 것이 시라고 보았다.⁸¹⁾

김기림은 ①에서처럼 주지적 태도를 ‘소박한 표현주의적 방법에 대립하는 시작상의 방법’으로, ‘시를 제작하는 것을 의식’하는 태도이자 ‘한 개의 목적

79) 박현수, 앞의 책, 39쪽. 혼돈을 질서화한다는 관점은 앙드레 브르통보다는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달리에게 초현실주의는 ‘혼돈의 체계화’에 대한 인식이었다. 달리는 자신의 편집증적 비평 방식을 ‘혼란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도 이성적이고 미학적인 판단력으로 빈틈없이 일을 수행하는 편집증 환자의 능동적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반수면 상태에서 자동기술의 받아쓰기를 해야 하는 초현실주의 시인의 수동적 의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브르통은 달리의 방법을 비판하였고 결국 그를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배제하게 된다(오생근, 앞의 책, 308-314쪽). 어쩌면 ‘일본에서 초현실주의를 주지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는 달리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하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교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80) 김기림, 「시작에 있어서의 주지적 태도」(『신동아』, 1933.4), 『김기림의 문학비평』(윤여탁 편), 푸른사상, 2002, 57~58쪽.

81)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전집』, 701쪽.

=가치의 창조로 향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연식 역시 ②와 같이, 시를 감정의 표현으로 보는 낭만주의의 관점 대신, 시가 건축과 같이 설계하고 조립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즉, 그는 '감정의 자발적 유로'나 '영감의 표현'을 중시하였던 낭만주의의 주정적 태도에 반대하여, 시가 '제작'되는 것임을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주정적 인습을 깨뜨"린 "주지의 문학론"⁸²⁾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구연식이 낭만주의를 주정적 인습으로 비판한 것은 영미 모더니스트들의 낭만주의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영미 모더니즘은 낭만주의가 드러낸 바 있는, 인간 유한성의 망각에서 기인한 무질서에 대한 발발로 나타났다. 영미 모더니즘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흄은 낭만주의가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불연속적인 것들에 연속성을 적용한 나머지, 무한한 것에 얽힌 정서를 찾고 자 상상력의 비상을 시도하면서 현실의 가치판단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낭만주의의 무질서한 감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묘사를 추구하는 것이 시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전에 담겨 있는 담담한 견고성을 찾으려 했다.⁸³⁾ 구연식 역시 잿더미의 현실에 맞서 시에서 사상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제시한 흄을 주목한다.⁸⁴⁾ 그리고 낭만주의를 "19세기까지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가치관, 그들의 속물주의를 카버하려는 감상적 낭만주의"⁸⁵⁾로 비판한다.

‘지(知)’라고 하면 사물을 시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⁸⁶⁾

여기서의 지(知)라는 것은 시에서 이미지의 창조는 지적 작용에 의한 산물이라는 뜻⁸⁷⁾

82)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39쪽.

83) 전홍실, 『영미 모더니스트 시학』, 한신문화사, 1990, 15쪽; 홍은택,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160쪽.

84) 「이미지즘 시 연구」, 4·13쪽.

85) 「현대의 Open Form 예술」, 164쪽.

86) 「이미지즘 시 연구」, 64쪽.

87)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12쪽.

이렇게 그에게 있어 주지적 태도는 주정적 인습에서 벗어나 시를 제작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인용문과 같이 지성을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인용문에서 구연식은 지성을 시적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의 이미지를 지적 작용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즉, 지성을 낭만주의의 혼란스럽고 무절제한 감정을 억제하고, 거기에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여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지성의 소산으로 보는 관점은 그의 시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은 정지용이 ‘시적 정서를 지성으로 도금(鍍金)하여 이미지화한 시’⁸⁸⁾를 썼다는 언급처럼, 신감각파 시 분석에 잘 드러난다. 그리고 『와사등』 수록 시편에서 김광균이 “시각[知]·정서가 합일”된 “지적 정서적 복합체”로서의 시를 썼다는 언급⁸⁹⁾처럼, 이미지즘 시 분석에도 잘 나타난다. 또한 조향이 회화적 오브제를 통해 사상이나 서정을 드러내려 했다(지적 정서적 복합체를 제시하려 했다)는 언급처럼, 다다 및 초현실주의 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초현실주의가 낭만주의 태도를 계승했다고 보았으며 의도성이나 사전 숙고의 흔적이 없는 자연발생적인 이미지를 중시한 브르통과는 달리,⁹⁰⁾ 구연식은 ‘다다·쉬르의 시가 ‘감정의 표현’보다는 ‘기술·표기’라는 스타일이 많다’⁹¹⁾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초현실주의 시 역시 표현이 아니라 설계·조립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말한다.⁹²⁾ 여기에 잘 드러나듯이, 구연식은 초현실주의의 이미지 역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작행위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구연식은 시에서 지성을 강조한다. 지성이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화하고, 무질서한 감정을 절제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점을 주목하면서 주지적 시론을 내세운다.

88)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39쪽.

89) 「이미지즘 시 연구」, 64쪽.

90) Andre Breton, 앞의 책, 104~105·162쪽.

91) 『고현학』, 183쪽.

92) 구연식, 「나의 삶과 문학」, 701쪽.

3) 그 외 주지적 시론

구연식의 주지적 시론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더 부연하기로 한다. 첫째, 언어에 대한 구연식의 예리한 감각 역시 주지적 태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신진은 구연식의 감각적 이미지 전개능력과 언어적 감수성을 주목하면서, 언어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은 그의 시를 김경린·조향 등 선배 초현실주의자들과 구별 짓게 하는 변별적 지수라고 말한다.⁹³⁾ 시론에서도 유음과 거센소리의 효과를 주목하고,⁹⁴⁾ 문자의 조형성과 같은 기표의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고,⁹⁵⁾ ‘시어화’를 깊이 고민⁹⁶⁾하는 등, 그는 언어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감각은 무의식의 밤심상태나 뻗쳐오는 영감에 힘입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정지용처럼, 명징한 지성 아래 철차탁마하는 언어 연금의 태도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연식은 지성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기도 했다. 그는 김광균의 이미지즘이 사회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즘과 구별하여 김기림이나 최재서와 같이 지성을 통해 현대문명을 비판하려 했던 주지주의를 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즉, 그는 문명비판과 관련지어 지성이 보다 적극적인 비판의 힘을 발휘하는 지점을 사유하기도 했다.⁹⁷⁾

셋째, 구연식은 지성의 과잉 사용을 경계한다. 그는 「현대의 Open Form 예술」에서 과잉된 주지적 태도가 자기를 기만하는 도구가 되어 시에서는 감정과 서정의 고갈, 비생명적 예술의 창조, 대중과의 괴리 등을 초래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기계화와 개성의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말한다.⁹⁸⁾ 이

93) 신진, 「초현실의 감각화와 전통적 정신의 일상화」, 『시문학』 390, 2004.1(『전집』, 666쪽).

94) 『고현학』, 21·191쪽.

95) 구연식, 「나의 시의 변명」, 『시문학』 390, 2004.1(『전집』, 727쪽).

96) 그는 “관계가 먼 낱말을 접근시킨다고 모두 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21쪽), “어떻게 시어화할 것인가가 문제”(『고현학』, 61쪽)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시어화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중요시했다.

97) 「조화와 균제와 통일의 품위를 잃은 채/ 폭력과 탐욕과 잔인한 변신은 현대의 공포」(구연식, 「도다이지(東大寺)의 사슴」, 『구주일기』, 빛남, 1992)라는 시구처럼, 그는 현대의 위기가 문명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성 작용’(조화·균제·통일)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98) 「현대의 Open Form 예술」, 164쪽; 『고현학』, 215쪽.

런 측면에서 그는 도구화된 지성 아래 가려진 인간의 참모습을 생동하는 원시적 생명,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찾으려 하는 원시주의(primitivism)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⁹⁹⁾ 그러나 「현대의 Open Form 예술」이 수록된 산문집 제목이 『지성의 해변』이라는 데에서 암시되듯이, 그는 지성의 과잉 사용을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지성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5. 생명적 오브제론

구연식은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전위적 실험이 처음에는 신기함을 불러일으키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 신기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전위예술이 너무나 짧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며, 지속될 수 없는 모순을 간직한 예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낼 것을 주장한다.¹⁰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위예술의 새로움이 동반하는 충격은 일회적으로 재빨리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다.¹⁰¹⁾ 그래서 전위예술은 충격을 전달하기 위해 매번 그 강도를 높여가며 새로운 실험을 거듭해야 하는 피곤한 도정에 놓일 수밖에 없다.¹⁰²⁾ 새로움을 찾아 쇄신하는 도정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연식은 자신이 청년임을 자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방가르드적인 것을 추구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¹⁰³⁾ 시론 분야에서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쇄신의 의지를 드러낸 다음 대목들이다.

99) 구연식, 「시집 『떠돌이 시』에 나타난 범인론적 미학」, 『고현학』, 215쪽.

100) 이러한 논지는 『고현학』 142·183쪽,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22쪽, 『전집』 717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1) Peter Burger, *Theorie der Avantgarde*, 최성만 옮김, 『아방가르드의 이론』, 지식을만드는 지식, 2013, 205쪽.

102) 도정일, 「이 시대 전위예술은 가능한가」,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240쪽.

103) 구연식, 「내가 말하는 나의 시세계」, 『전집』, 717쪽.

① 초현실주의의 방법을 기초로 하되 딱딱하고 비생명적인 이미지에 피가 통하도록 해야 해. 그러니까 이미지에 생명이 통할 수 있어야지.¹⁰⁴⁾

② “베토벤이 강간한 월광 아이새도우” 등 초현실주의적 폭력적 기법의 시를 의도적으로 실험을 하여 기계문명 물질문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⁰⁵⁾

③ 오브제만이 동시공존하는 부르통의 『백발의 권총』에 수록된 시나 조향 시의 「새로운 연대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경이스럽고 비생명적이고 어둡고 불안스러운 이미지군의 교잡 이외는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었으니¹⁰⁶⁾

①에서 구연식은 초현실주의의 쇄신을 주장한다. 초현실주의의 이미지가 딱딱하고 비생명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초현실주의의 이미지 속에 생명(피)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초현실주의의 이미지가 딱딱하고 비생명적이라는 말은 ②와 ③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②에서 구연식은 자신의 시 「아이 샤도우」에서 기계문명과 물질문명에 대한 대응으로 초현실주의의 폭력적 기법을 의도적으로 실험했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이 첫시집에서 전면화했던 데페이즈망이나 오브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기서 그는 원거리에 있는 사물을 한자리에 당돌하게 모여 있게 하는 그 기법을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③에서는 부르통과 조향의 작품에 나타난 오브제를 비생명적 오브제라고 부른다.

구연식은 이렇게 폭력성과 비생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초현실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이미지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5~1998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감각』에 수록된 「Surrealism과 관념의 애매성의 지향」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생명적 오브제’라는 용어를 통해 해소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글은 그의 시적 쇄신의 노력과 이후의 시적

104) 김인섭, 「감각의 바다에서 피어나는 생명시학」, 『예술부산』, 1998년 봄(『전집』, 596쪽).

105) 구연식,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곳」, 『문학도시』, 1996년 겨울호(『전집』, 688쪽).

106) 구연식, 「Surrealism과 관념의 애매성의 지향」, 『감각』, 시로, 1985, 115쪽.

경향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크리스탈 술잔 속에/ 노(櫓)도 없고 돛도 없는/ 눈동자가 표류한다.//
속눈썹까지 젖은 것은/ 이슬도 술도 아닌/ 눈물이다.// 물보다 술보다/
짠/ 눈물이다.” — 「눈물」 전문

그 눈동자는 술잔 속에서 노(櫓)도 없고 돛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브제로써 서정시를 써보려는 것이었다. 이는 쉬르의 이미지에 서 수정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절대적 비생명적 오브제로서의 눈동자가 아니며 오브제의 파편도 아닌 생명적 오브제이다.¹⁰⁷⁾

그는 생명적 오브제를 브르통과 조향의 시에 나타난 ‘절대적 비생명적 오브제’를 수정한 오브제라고 밝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물들의 현실적·합리적인 관계를 박탈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데베이즈망이고, 그렇게 연관성이 전혀 없이 결합된 이질적인 사물들 하나하나가 오브제라고 할 때, 오브제는 다른 것과의 관련성을 상실하고 고립·파편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것이 전체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인데 반해, 이러한 오브제에서는 작품 전체와 단절된 부분의 자립성이 강조된다.¹⁰⁸⁾ 그래서 그것은 전체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소통되지 못하는 비생명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구연식은 이것을 생명적 오브제로 바꾸려 한다.

「눈물」에는 ‘크리스탈 술잔’과 ‘눈동자’가 당돌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눈동자는 진하고 짠 눈물을 흘리면서 술잔 속을 표류하고 있다. 술잔과 눈동자의 결합은 연관성이 희박한 동떨어진 사물들의 결합이므로 이 결합체는 데베이즈망에 의한 결합이고, 술잔과 눈동자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우리는 이 눈동자가 술잔에 비친 화자의 눈동자임을, 그리고 그 깊고 짠 눈물이 다름 아닌 화자의 눈물임을 쉽게 암시받을 수 있다.

107) 「Surrealism과 관념의 애매성의 지향」, 115쪽.

108) 뷔르거에 의하면 유기적 작품의 개개의 요인들은 작품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작품 전체를 지시하지만, 아방가드적 작품에서 개별적 요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지닌다. Peter Burger, 앞의 책, 184쪽.

즉, 이 이미지들에서 슬픔에 젖어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해낼 수 있다. 훔껏 보면, 이 이미지들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의 폭력적인 결합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파편으로 고립되지 않고 전체 상황이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자의 깊은 정서까지 담아내고 있다. 이 생명적 오브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①우선, “초현실주의의 방법을 기초”로 한다는 언급처럼, 데뻬이즈망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당돌하게 결합시킨다. 즉,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동시공존하게 한다. 이것은 피에르 르베르디가 강조했던 것¹⁰⁹⁾이며, 구연식 역시 “서로 거리가 먼 것끼리일수록 이마주의 효과는 크다”고 말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 방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상상력의 확대작용”¹¹⁰⁾이 일어나도록 하고 개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도록 한다.

②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미지들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동반된다. 즉, 파편적으로 고립된 그 오브제를 작품 전체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적 오브제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령, 「눈물」의 경우 표류하는 ‘눈동자’가 다른 아닌 술잔에 비친 화자의 눈동자임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하여,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인이 말한 “비생명적인 이미지에 피가 통하도록” 한다는 말은 이렇게 고립된 것을 이어주는 유기성 획득을 두고 한 말로 읽힌다.

③나아가, 그 이미지를 정서와의 결합체로 만들어 그 이미지에 화자의 감정이 묻어나게 한다. 구연식은 초현실주의 시를 “시각적인 이미지의 스파크”라고 하면서, “그 순간적인 이미지에 서정성이 가미”¹¹¹⁾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 오브제에 화자의 정서가 묻어나게 하는 것. 인용문에서는 이것을 “오브제로써 서정시를 써보려” 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데뻬이즈된 오브제가 전체나 다른 부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기적

109) Andre Breton, 앞의 책, 84쪽.

110)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15~16쪽.

111) 구연식, 「내가 말하는 나의 시세계」, 『전집』, 717쪽.

인 맥락을 부여하고, 여기에 시인의 감정까지 묻어나게 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생명적 오브제’라는 독특한 초현실주의 시론을 창출하게 된다.

그동안 초현실주의에서는 다양한 오브제가 제시된 바 있다. ①기성품을 약간 가공·수정하여 일상적 의미와 용도를 무시하고 새로운 해석과 의미가 일어나도록 한 ‘레디·메이드의 오브제’, ②꿈의 이미지를 현실에 참가시킴으로써 현실의 신비를 환기시키는 ‘꿈의 오브제’, ③환각의 출현에 기초를 두었으며 에로틱한 욕망을 구현시키는 ‘상징기능의 오브제’, ④우연히 만나는 자연계의 사물에서 초현실주의의 해석을 부여한 ‘자연의 오브제’, ⑤원시적 지역의 종교적·주술적 의미를 가진 물체에 초현실주의의 해석을 부여한 ‘미개인의 오브제’, ⑥기하학의 합리성과 포에지의 비합리성을 동화시킨 ‘수학의 오브제’.¹¹²⁾ 이 오브제들에서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과 거기서 발생하는 경이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고립을 이어주는 유기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경이감을 살리면서 파편화를 이어주는 유기성을 살린 이 생명적 오브제는 독창적인 오브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의 한계, 나아가 현대의 비생명성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창안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연식은 1985년부터 초현실주의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하여 초현실주의의 방법론을 원용하되, 파편적이고 비생명적인 초현실주의의 이미지에 생명성을 불어넣으려는 생명적 오브제론을 선보인다. 이러한 변모는 그가 혼란을 질서화하려는 주지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이후 그의 시론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1985년에 제출된 생명적 오브제론의 생각이 1998년의 글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것을 벗어나는 시론을 찾기 어렵다.¹¹³⁾ 그의 후기 시 역시 초현실주의가 약

112) 정귀영, 『초현실주의·소환진·‘꿈’ 무의식 죽음 광기 심령 원시종교』, 문예한국사, 2001, 41·347~348쪽; Andre Breton, 앞의 책, 266쪽.

113) 그는 간혹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언급한다. 1993년의 대답에서 그는 “지금 자신은 포스트모더니에 입각한 시를 쓴다”(『전집』, 679쪽)고 말한다. 1996년의 글에서는 입원실에서 체험한 이야기나 단상을 적은 시를 ‘시의 사후시대(死後時代)의 시’(『전집』, 687쪽)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포스트모더니즘 시에 포함시킨다. 1998년의 대답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구연식은 자신의 시가 여전히 초현실주의의 정신과 방법론을 그 근저에 두고, 서정성·생명성·일상성을 시 속에 드러내었다고 거듭 강조한다.¹¹⁴⁾ 설혹, 서정성·생명성·일상성이 압도적인 시일지라도 초현실주의의 정신만큼은 잃지 않으려 했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이 점에 근거하여 본다면, 지속적인 쇄신을 주장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의 도정은 새로운 실험에 몰두했다기보다는 큰 변화 없이 생명적 오브제에서 시도한 것(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생명성과 서정성 담기)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 전위예술의 실험지상주의는 보다 강도 높은 충격을 만들기 위해 목이 부러질 때까지 스텐트를 계속해야 하는 저주받은 도정 위에 놓인 것이었다.¹¹⁵⁾ 구연식은 그러한 비극을 내포한 전위예술의 실험지상주의 대신, 『감각』에서부터 도입하게 된 생명성을 서정성이나 일상성과 결합하여, 초현실주의에 생명정신의 깊이를 더해가는 작업에 몰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쇄신은 전위예술이 지닌 실험지상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근본적인 모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이 글은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론과 생명적 오브제론을 조명한 글이다. 구연식의 모더니즘 시 연구는 다다이즘·초현실주의, 신감각파, 이미지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초현실주의가 있다. 구연식은 전위예술 사조

시가 모든 대립항이 무너진 평화와 공존의 세계를 다루는 시라고 말한다(『전집』, 599쪽).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이 “단절된 이미지의 파편을 결합시켜 생명을 불어넣으려”(『전집』, 705) 한 시도에 한 획을 그은 사조라는 발언을 볼 때, 그는 포스트모더니즘마저 생명적 오브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구연식은 『안개』에 수록된 시편을 설명하면서 그 시가 “서정적이건 생명적이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신과 방법론은 쉼(Sur)에 핵을 두고 있다”(『전집』, 686쪽)고 말한다. 그리고 『오륙도』는 “쉬르(Sur)문학의 방법론에 의해서 현대인의 정서를 찾으려는 점”(『전집』, 708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2004년에 쓴 글에서는 “지금도 시작 바탕에 다다(Dada)·초현실주의·이미지즘 등의 원리와 방법론, 지용의 언어 연금술적 신감각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전집』, 724쪽)고 말한다.

115) 도정일, 앞의 글, 240쪽.

를 발생론적 맥락과 관련지어 연구하였고, 다다이즘을 중심으로 전위시가 식민지 조선에 수용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삼사문학』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고전문학작품들을 데페이즈망의 관점에서 재독해하였다. 그는 신감각파를 모더니즘의 한 분파로, 초현실적 이미지를 이미지를 한 분야로 분류하는 독창적인 시각을 선보이기도 했다.

구연식의 모더니즘 논의에서 놓칠 수 없는 점은 주지적 시론이다. 그는 반지성적인 유파로 거론되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마저 주지적인 경향으로 분류한다. 이 점은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를 주지의 문학에 포함시킨 점, 지성이 혼란스러운 인간 내부의 정신과 심리마저도 과학적으로 질서화할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가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점, 자신의 초현실주의 시작법에도 혼란을 규제하는 통일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 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지성이 무질서한 감정을 절제하고 시적 이미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언어에 대한 예리한 감각 역시 명징한 지성의 작용과 연결 지었다. 또한 문명비판과 같이 지성이 사회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점을 사유하는 한편, 지성의 과잉 사용을 경계하기도 했다.

구연식은 『감각』에서부터 파편적이고 비생명적인 초현실주의의 이미지에 유기적인 생명성을 불어넣으려는 작업을 진행한다. 데페이즈망과 오브제라는 초현실주의의 방법을 활용하면서도, 그 오브제가 언제나 다른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초현실주의의 비생명적인 이미지에 생명이 통하도록 하는 쇄신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생명적 오브제라는 독창적인 시론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변모는 그가 혼란을 질서화하려는 주지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생명성에 대한 천착은 전위예술이 지닌 실험지상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근본적인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구연식, 「신감각파와 ‘정지용’ 시 연구」, 『동아논총』 19(1), 동아대학교, 1982.
_____, 「이미지즘(Imagism) 시 연구—김광균의 「와사등」을 중심으로」, 『대학
원논문집』 8(1),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4.
_____, 「조향 연구」, 『재부작고시인연구』, 아성출판사, 1988.
_____, 「한국 민요에 나타난 해학성 고찰」, 『동아논총』 15(1), 동아대학교, 1978.
_____, 「현대시의 방법론적 고찰」, 『동아논총』 9, 동아대학교, 1972.
_____, 『감각』, 시로, 1985.
_____, 『구주일기』, 빛남, 1992.
_____, 『지성의 해변』, 시로, 1985.
_____, 『한국시의 고현학적 연구』, 시문학사, 1979.
_____, 『영원을 넘어—송랑 구연식 시전집』(구충서 편), 물망초, 2022.

2. 논저

- 간호배, 「구연식 시에 나타난 감각이미지」, 『문화와 융합』 44(6), 한국문화융합
학회, 2022.
_____, 「구연식 시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방법론」, 『비평문학』 75, 한국비평문
학회, 2020.
_____, 「한·일 초현실주의 시 비교 연구」,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화학회, 2004.
권 은, 「고현학과 산책자」, 『구보학보』 9, 구보학회, 2013.
기시까와 히데미, 「‘주지주의 문학론’과 ‘주지적 문학론」, 『국제어문』 27, 국제
어문학회, 2003.
김기림, 『김기림의 문학비평』(윤여탁 편), 푸른사상, 2002.
김성수, 「재·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의 연구사·문화사적 의미」, 『상허학
보』 55, 상허학회, 2019.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74.
김유중, 「시와 근대적 주체」, 『신생』, 2004년 가을.
_____, 「영미 고전주의적 경향의 모더니즘 시론이 한국 현대시에 미친 영향에

- 대한 고찰,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2002.
- _____, 「한·중·일 삼국의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개념적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6, 한중인문학회, 2017.
- _____,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세계관과 역사 의식』, 태학사, 1996.
- 김윤식,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 김정훈, 「요코미즈 리이치의 문학적 '전향'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30(1), 한국일어일문학회, 1997.
- 김종훈, 「동아시아 '신감각파'의 출현과 전개 양상」, 『한국시학연구』 30, 한국시학회, 2011.
- 김진희, 「김기림의 초현실주의론과 모더니즘 연구 I」, 『한국문학연구』 5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 김창우, 「구연식의 『검은 산호의 도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80, 우리문학회, 2023.
- 김흥식, 「박태원 문학과 고현학」, 『박태원 문학 연구의 재인식』, 예옥, 2010.
-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 문덕수, 『한국모더니즘시 연구』, 시문학사, 1981.
- 문혜원, 「한국 근대 초현실주의 시론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7, 한중인문학회, 2006.
- 박근영, 「한국초현실주의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8.
- 박인기, 『한국현대시의 모더니즘 연구』, 단대출판부, 1988.
- 박정선, 「식민지 근대와 1920년대 다다이즘의 미적 저항」, 『어문논총』 37, 경북어문학회, 2002.
- 박태원, 「옹노만어(擁爐漫語)」,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05.
- 박현수, 『한국 모더니즘 시학』, 신구문화사, 2007.
- 손정수, 『개념사로서의 한국근대비평사』, 역락, 2002.
- 송재영, 「해설: 다다이즘과 쉬르레알리즘 개관」, 『다다/쉬르레알리즘 선언』(트리스탕 자라·앙드레 브르통), 문학과지성사, 1987.
- 오생근, 『초현실주의 시와 문학의 혁명』, 문학과지성사, 2010.
- 오세영,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 이승훈, 『시작법』, 문학과비평사, 1988.
- 이승훈,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2000.
- 이시우, 『원본 『三四文學』』(간호배 편저), 이회, 2004.
- 이운섭, 「한국의 주지주의와 영미 모더니즘」, 『동서 비교문학저널』 17,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7.
- 이화진, 「박태원과 신감각파, ‘감각’의 양상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 전세진, 「1930년대 주지주의 이론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소고」,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 전홍실, 『영미 모더니스트 시학』, 한신문화사, 1990.
- 정규영, 『초현실주의·소한진·‘꿈 무의식 죽음 광기 심령 원시종교』, 문예한국사, 2001.
- 정지용 외, 「문인좌담회 1」, 『동아일보』, 1933.1.1.
- 조 향, 「테뻬이즈망의 미학」, 『한국전후문제시집』(신구문화사 편), 신구문화사, 1961.
- 홍은택, 「영미 이미지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양상」, 『국제어문』 27, 국제어문학회, 2003.
- 황현산, 「해설—상상력의 원칙과 말의 힘」, 『초현실주의 선언』(앙드레 브르통 저), 미메시스, 2012.
- Breton, Andre, *Manifestes du Surre'alisme*, 황현산 옮김, 『초현실주의 선언』, 미메시스, 2012.
- Burger, Peter, *Theorie der Avantgarde*, 최성만 옮김, 『아방가르드의 이론』, 지식음만드는지식, 2013.
- Calinescu, Matei, *Five faces of modernity*, 이영옥 외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4 2판.

〈Abstract〉

Koo Yeon-sik's Modernism Poetics and Theory of the Vitality Object

Heo, Jung

This article sheds light on Koo Yeon-sik's theory of modernist poetry and the theory of vitality object. Koo Yeon-sik's study of modernist poetry proceeds in the order of Dadaism and Surrealism, Neo-Sensualism, and Imagism. At the center of that research is Surrealism.

Koo Yeon-sik elucidated the genetic context of avant-garde art, traced the process of its reception in Korea, and studied Korean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vant-garde art. He uniquely classified modernism and types of images. He also included Dadaism and Surrealism in the literature of Intellect, viewed the intellect that orders chaos as operating in Surrealist poetry, and presented a unique Surrealist poetic method in which a unified order regulating chaos operate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rrealism, he devised an original poetic theory called the 'vitality object.' This is a poetic theory that breathes organic vitality into the lifeless images of Surrealism. It was a fundamental search to escape the trap of experimentation for its own sake inherent in avant-garde art. Koo Yeon-sik is known as a poet who wrote surrealist poetry, but he should also be remembered as a poetry researcher.

* Key Words: Koo Yeon-sik, Surrealism, Modernism, Intellectualism, Vitality Object

· 논문투고일: 2026년 6월 8일 · 심사완료일: 2026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6년 7월 19일
--